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

것은? [3점]

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,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.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,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.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,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.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,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.

① ‘똥그란 두 눈을 홰홰 내젓’는 원석의 처에게 ‘호령’하는 꼬깔 참봉의 모습에서,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.

② ‘그까짓 놈’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‘정신 차릴 날’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,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.

③ ‘경관의 앞’에서는 ‘상전 하인이 없었다’는 것에서,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.

④ ‘쫓겨나게’ 된 원석이 ‘깨달은 것이 있’다며 ‘사람답게 살아 보겠다’고 말하는 것에서,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.

⑤ ‘수그러진 목소리’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, ‘굽실’대며 ‘쇤네’라고까지 하는 꼬깔 참봉의 모습에서, 위 세대 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.